

아산정책연구원 서평모임(2017.3.22.)

한국 근대에 관한 일독법, 새로운 이해의 어려움

- 노관범, 『기억의 역전: 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소명출판, 2016)을 읽고-

이행훈(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국 근대에 관한 연구는 전근대와 근대가 착종되어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의미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비판과 성찰 그리고 극복의 대상으로 회자되는 한국 근대가 사회·정치나 문화·역사 방면에서 적지 않은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관범 교수(이하 필자)의 『기억의 역전』은 ‘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라는 부제에서 전체 집필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어쩌 보면 지금 우리는 매 순간 전환기로 여겨지리만치 숨 가쁜 사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상사적으로는 1890년대에서 1910년대에 이르는 시기야말로 위기와 동시에 희망이 공존하는 전환기였고, 구망의 논의와 근대민족국가를 향한 염원이 당대 지식인 담론 공간을 지배했다.

한국 ‘근대’는 1990년대 이후 한국 학계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필자의 고민처럼 근대와 민족 또는 근대주의와 민족주의의 양분법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계속되고 있다. 오늘 필자의 연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 본래 사료 분석에 치밀한 필자의 근기와 노고가 묻어나는 역저가 그간의 한국 근대사 연구에 대한 비평과 아울러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처음 펼치는 독자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호기심, ‘새로운 이해’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본문에 대한 인상을 피력하기 전에 우선 표제가 불러일으키는 궁금증 한 가지는 ‘기억의 역전’이라는 제명에서 ‘기억’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역사는 지나간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서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에 관계한다면 ‘역전’이란 ‘과거의 현재’에 관한 그릇된 기억을 즉 ‘현재의 과거’를 뒤집어 바로잡는 실천적 지향을 의미할 터이다. 한국 근대전환기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는 의미심장한 기획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책머리에와 목차를 통해 필자의 연구 방향의 대강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한국 근대 전환과 관련하여 일본보다는 중국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은 당대 지식 지형에 대한 다소 편협한 이해가 현재 학계에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실 시기상으로도 한국 근대 연구는 갑오경장으로부터 대한제국까지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가 주류이다. 미완의 개혁과 식민으로의 퇴행이 가져온 무게에 비춰보면 자연스런 현상이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최남선은 한국 근대전환기에 일본의 영향에 앞서 중국의 영향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한중일 삼국이 각기 다른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한중, 한일을 넘어 동아시아로 시야를 확대해야 근대전환의 특징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적지 않다.

근대 중국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인식을 다룬 제1부의 제목을 ‘근대 중국의 발견’으로 명명

한 것도 근대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려는 필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여기에 실린 세 편의 글은 모두 중국이라는 타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먼저 「대한제국기 『황성신문』의 중국 인식」에서는, 『독립신문』적 근대 서사와 『대한매일신보』적 민족 서사가 ‘중국의 타자화’를 공통의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황성신문』의 중국 인식을 검토했다. 사실 근대 즉 문명개화와 민족의 서사는 별개가 아니었고, 매체의 특성상 두 신문을 근대와 민족으로 확연하게 구분 짓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황성신문』의 중국 인식은 ‘중국의 타자화’가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든다. 『황성신문』이 주체의 계몽을 역사적 책무로 자임할 때, 천하 관념이 해체된 근대 세계체제에서 주체 인식은 타자 인식을 전제로 하며 이때 타자 인식은 주체를 구축하는 일부가 된다. 이렇게 보면 『황성신문』의 중국 인식은 주요 필진들의 사상적 성향에 기인하여 배타성을 띠지 않았다하더라도 전통적인 중화주의로부터 상당 부분 이탈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필자가 지적한 교육과 식산, 입헌정치의 모델로서 중국 또한 근대민족국가의 담론 자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성신문』은 민족과 근대 서사로부터 자유로웠는지, 나아가 근대와 민족을 떠나 전환기를 이해할 새로운 제3지대 또는 제3의 관점을 필자가 구상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국망 후 한국 유교 지식인의 중국 인식」에서 중국 인식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 동시성’이란 키워드로 이어진다. 필자는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이 근대에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시적인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고, “중국이 근대 이전에 정치적 계서성과 문화적 동질성의 측면에서 인식되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역사적 동시성의 측면에서 인식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던 셈”(47~48쪽)이라고 설명한다. 근대 세계체제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산업혁명을 앞서 이룩한 서구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민족국가의 성립은 일세계의 보편적 현상이었고 한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역사적 동시성’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경험과 시기에 한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근대 전환은 대동소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에서 양계초 정치사상의 재현」은 한국 근대 연구의 기초 토대 구축이라는 문제를 환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한국 근대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전근대에 비해 뒤쳐져 있는데,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는 일부 되어 있지만 개인 저작의 발굴과 정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동양철학을 흔히 경전 주석사라고도 하는데, 이관구의 『신대학』은 ‘대학’의 체제와 정신을 부분적으로 잇고, 양계초의 정치사상을 해방 후 근대 국민국가 수립에 참조하려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신대학』의 편집체제 분석에서, 전통적인 심성론과 수양론을 배제하고 다만 ‘명명덕’은 양계초의 「신민설」의 ‘논공덕’과 ‘신민’을 차용하여 국민도덕과 국민정신을 배양하는 자료로 삼았다고 했다. 주지하듯이 양계초는 1903년 『신민총보』에 ‘논공덕’ 이후 ‘논사덕’을 발표했다. ‘논공덕’이 국가사상의 박약 원인으로 유학을 지목한 반면, ‘논사덕’은 사덕과 공덕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유가를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변화는 말년 양계초의 중국 학술사상사에 대한 인식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대학』 편찬 의도에 ‘거저 유신’의 대상자인 미소 제국주의에 기생하는 자들의 발호도 양계초가 말한 공덕과 사덕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공간에서 맞이한 근대 중국의 발견’으로서 『신대학』의 파급력을 알기 어려운 까닭은 ‘대한제국기처럼 양계초의 설법이 시대의 전위도 아니었고 시대의 주류도 아니었기 때문’도 중요한 요인이나, 해방 정국에 요청되는 사

상적 완결성을 미처 충족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는 아니었을까.

‘제2부 개성 유학의 전개’는 보론을 제외하고 보면 전체 370여 쪽 가운데 무려 148쪽으로 1, 2부에 비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새로운 이해’의 연장선에서 개성 유학의 사상사적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필자는 성리학 양대학과를 중심으로 한 한국철학계나 경향 이원성으로 수렴하는 한국 역사학계의 지역사 이해를 확장하는 시도로 개성 지역 지성사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실학과 관련하여 주목받던 개성 지역이 실제로는 “서경덕 이후 오랫동안 미미했던 성리학 전통의 재개”였으며, 사상사의 측면에서 조선 후기 지성사를 “성리학 전통에서 실학이라는 역사적 변용” 외에 “지역 단위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는 유학 전통의 ‘형성사’로서 새롭게 독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성 유학과 개성 문인들의 활동은 “유교 전통과 근대 사회에 관한 이분법적 이해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238쪽)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주변부보다는 중심에서 더 많은 사상적 교류와 변화가 발생함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데 고려의 수도로서 역사·문화적 전통을 지닌 개성이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힘입어 실학 기풍을 발흥하는 동시에 성리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아마도 조선 후기 개성 지역의 상업 발달과 부의 축적이 세도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했고, 각종 원우 설립과 시사 모임, 문집 출판에 밀거름이 되었으며, 1900년대 개성 지역의 신교육 운동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을 테다. 지역 지성사를 확장하는 3편의 연구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개성이 유학 전통을 복원·계승하였음은 충분히 드러났다. 그런데 그러한 지향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아쉽다. 중심(京, 性理學)을 지향하는 주변부의 특성으로 설명한다면 다시 경향 이원성으로 수렴되고 말텐데 조유선, 김헌기, 김택영으로 이어지는 학문이 실학도 양명학도 아닌 정통 성리학에 집중한 일종의 복고 현상을 어찌 해석해야 좋을지, 지역 지성사의 관점에 선 필자에게 다시 묻고 싶다.

‘제3부 조선 개념의 현장’은 ‘실학’과 신채호의 ‘아’ 개념을 개념사의 시각, 또는 방법으로 검토한 것이다. 문화사의 한 갈래인 개념사가 사회사와 정치사를 결합하며 근대의 ‘언어적 전회’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국내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사회학, 정치학, 문학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산출되고 있다.

먼저 「전환기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이해」는 “‘실학’ 개념이 그 자체로 자명한 개념적 실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지식과 이념에 의존해 구성된 20세기 학술 개념이라는 사실”(277쪽 각주 1)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한다. ‘실학’ 개념의 외연, 개념의 외포, 개념의 로컬리티를 분석 단위로 한 실증은 조선후기 실학과 현대 연구자들에 의해 명명된 ‘실학’ 사이에서 간과되어 온 대한제국기 ‘실학’ 개념의 의미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그런데 필자가 이끌어온 ‘개념사의 시각’은 오히려 개념의 다층성, 복잡성, 모호성, 다양성, 지속성에 주목하고, ‘그 자체로 자명한 개념적 실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개념사란 개념이 특정 시기에 어떻게 발화되는지 그리고 사회·정치적 현상에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실학’ 개념의 운동 양상이 ‘실학 개념사’의 하나이고,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 그리고 현재를 일관하는 그 자체로 자명한 실학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개념사 영역 밖의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신채호의 ‘아’ 개념의 재검토」는 『기억의 역전』을 수미일관하는 필자의 문제의식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즉 근대와 민족의 서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이해의 모색이 여기서는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라는 전형성으로 신채호를 양분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로 표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념사의 검토를 거친 결론에서 필자는 신채호의 ‘아’ 관념 형성이 1900년대 민족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탈민족주의적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도 민족주의나 탈민족주의로 양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자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는지 모른다. 전환기 사상의 새로운 이해는 시선 내지 방법론 차원의 새로운 접근방식, ‘중국에 대한 인식(역사적 동시성)’, ‘지역 지성사의 복원’, ‘개념사의 시각’을 동원한 촘촘한 실증에서 도출된 결과가 무엇인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규명한 결과가 근대와 민족의 서사라는 담론 자장 밖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인지 말이다.

끝으로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자면, 신채호의 『조선사』 「총론」(1924)의 그 유명한 ‘아와 비아의 투쟁’에서 ‘아’와 ‘비아’ 관념 형성에 일본이나 양계초의 영향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와 비아’의 용례는 독일 철학자 피히테(Fichte, J. G., Einige Vorlesungen über die Bestimmung des Gelehrten, Jena and Leipzig : Christian Ernst Gable, 1794)를 일본에서 번역한 杉谷泰山의 『人間天職論 : 人生解決』(1906) 외에도 『道義原論』 「非我的善」(1897), 『教育時代觀』 「我と非我」(1899), 『心理學概論』 「自我と非我の觀念」(1901), 『人格論』 「自我と非我との關係」(1912), 『自我論』 「自我非我的相關性」(1916) 등에서 수용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양계초 또한 1915년 「菲斯的人生天職論述評」을 『大中華』 4, 5호에 연재한 바 있다. 만약 신채호의 ‘아’ 관념 형성 배경에 양계초나 일본에 수용된 독일 철학의 영향이 있었다면 필자가 주목한 중국과 함께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로 시야를 확대해야 전환기 조선사상의 이해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기실 대한제국기 양계초 수용은 무술변법 실패 후 일본 망명시절,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서양사조에 대한 학습이 주조이므로 서구-일본-중국(양계초)-조선이라는 중첩된 번역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한국개념사 연구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워진 숙명이다.